강원국(참여정부 청와대 연설비서관) 3차 구술

1. 구술자: 강원국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2년 4월 19일
5. 구술장소: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6층 대회의실
6. 구술분량: 14분05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연설 준비과정과 '대통령 연설'에 관한 인식

구술자 : 워낙 연설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애정이 깊으시고 어느 대통령님보다 아마 연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거기에 할애하는 시간도 많으셨고 연설 쓰는 사람들의 고충이라든가 그런 것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연설[문]을 한번 올리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인데 그로부터 한 세 번, 네 번. 광복절 연설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 여섯 번 전혀 다른 버전(version)의 연설들을 주문을 하시는데 그건 노 대통령님이 본래 일을 하면서 계속 생각이 발전하시고 본인께서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는 게 생각을 막 촉발시키시는 거 같애. 그러니까 저희를 불러놓고 연설에 대해서 주로 대통령님이 구십오 프로(95%), 구십팔 프로(98%) 말씀을 하시죠. 쭉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이 발전하고 이러니까 한번 올라가면 다음번 연설은 전혀 다른 주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이거 내가 이야기 한 거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시간을 당겨야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빨리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뭐 밤을 새더라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내일 오후 다섯 시' 이렇게 하루 딱 하고, 정 그냥 힘들겠다 싶으면 뭐, 이틀 말미를 달라고 하는데 대개 그런 경우에 대통령님이 다 아세요. 아셔서, '그거 하루 갖고 되겠나? 힘들걸?' 그러면서 쭉, 뭐, '하여튼 자네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자. 되는대로 갖고 와보라'고 그러신 경우가 저희들은 그러니까 좀 그래도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인제 저희한테 그게 어느 디데이(D-day), 국회연설이라든가 광복절 연설은 계속 준비하다가

결국은 연설하시는 당일 날 끝나요, 새벽에. 그 전까지 끝이 아니야. 그 전날 밤까지도 고치셨으니까. 매번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국회에 삼(3)년차 국회 가서 하신 연설[1] 같은 경우는 새벽, 밤 몇 번 고치셔가지고. 전날 밤 열 시인가 다시 부르셨어요. 구술을 처음부터 다시, 거의 처음부터 다시에요. 왜 그러냐면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부르셨는데 말씀하시면서 더 생각이 막 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와] 전혀 다른 연설이 되어버렸죠, 나중에. 그런데 국회연설은 인쇄도 해야 되고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의원들한테. 다음날 아홉 시까지인가 무조건 깔아야 돼요. 그런데 불가능, 정말로 불가능. 대통령님한테 열 시 넘어서 구술을 듣고, 관저에서 구술을 듣고 내려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인제 대형사고가 났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님, 이거 못쓰겠는데요'는 안 되잖아요. 그날 기억이 생생한 게, 열 시쯤인데 대통령님이 관저에 불도, 복도 불도 다 끄세요. 아주 검약이 몸에 배신 분이에요. 복도 불도 다 끄시고 깜깜한데 저쪽에서 나를 부르시길래 정말 그거는 불길했죠. 연설 때문에 부르시는데, 내일 연설인데 그, 부르시길래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해서 올라가서 관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은 깜깜한데 대통령님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시면서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까워오는데 막 심장을 조여 오는 느낌이었는데 오셨어요. 오시더니, 처음 시작은 항상 그러세요. '조금만 손보자. 생각난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게 갈수록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내려오면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안 됐어요. 그런데 새벽 세 시쯤에 대통령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썼노?' 그러시더라고요. '다 안됐지?' 그래서 '인제 거기까지 된 거를 나한테 넘겨 달라, 그리고 니들은 자라. 몇 시에 돌려주면 인쇄할 수 있노?' 그래서 '다섯 시 반에는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확히 다섯 시 반에 전화를 하셨어요. 메일로 저희가 보냈거든요. 딱 메일 딱 왔는데 '노무현'해가지고 메일에 이름이 노무현밖에 안 찍혀 있어서 딱 왔어. [웃음] 딱 보니까 우린 열면서도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말씀을 전화로 어떻게 하셨냐면, '끝은 못 냈다. 니들이 마무리는 해라. 나도 졸려서 자야 되겠다. 나도 연설해야 될 거 아니냐?' 연설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하는 연설이라 대통령님 주무시고 가셔야죠. 그런데 이제 [메일을] 여는데 조마조마 한 거야. 마무리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1) 2005년 2월 25일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요. 딱 보니까 끝까지 다 쓰셨어요. 정말 끝까지 다 쓰셨어요. 마무리라는 말씀은 오타나 이런 거 있는지 봐달라고 하신 건데 오타도 없고 진짜 완벽하게 쓰셨어요. 우리 '룰루랄라' 하고. 인쇄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인쇄소 사람이. 그때가 오십(55) 문, 오십오(55) 정문[2]인가 그랬죠. 면회실 그쪽에 대기하고 있었고, 딱 넘겨줘서 인쇄하고 해서 그날 전혀 사고 없이, 대통령님도 아주 기분 좋게 끝냈죠. 그만큼 연설을 잘 아시고 연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어요. 진짜.

면담자 : 정례화 돼있지 않았겠지만 그런 식의 구술회의 같은 거 하실 때 기억나는 일이 있으세요? 연설비서관실만 가는 것도 아니죠? 이를테면 관련 실장, 수석들도 배석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구술자 : 원래는 구술과, 구술과 독회(讀會)라고 그러죠. 독회라고 그래서 그건 과거 대통령님 때부터 쭉 있어왔던 거죠. 중요 연설에는 비서실장 당연히 참석하시고 대게 수석급, 경제, 사회, 홍보 이런 쪽 수석님들 다 오시고 연설비서관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정무 쪽 판단이 필요하면 그쪽도 오시고 그래서 독회라는 걸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특이하게 그 그걸 좀 싫어하셨어요.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랑 같이 하는 독회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건 아니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뭐, 아무래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면 걸리는 것들이 많죠. 다른 수석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될 부분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라크 파병 연설에서 이제 파병되는 군인들 앞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청중이 다섯 명이다, 우리가 보는 청중은 군인 하나잖아요. 군인한테는 '용감하게 싸우고 와라' 이게 이제 파병되는 군인한테 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또 하나 청중이 파병된 군인의 어머니, 어머니한테는 절대 안전하게 몸성히 갔다 오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거기에 또 미국이 보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원칙 있게 그런 거. 또 이라크 당사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투병 보내는 게 아니고 건설의무[3] 이런 거. 또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그런 쪽으로 가야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 연설은 보이지 않는 청중이 많거든요. 당연히 수석들도 그런 보이지 않는 청중을 의식해서 주문들을 하고 대개 주문이라는 게 뭘 '하자'가 아니고 '하지 말자'거든요. 대통령님이 원래 금

2) 청와대 외부 출입구를 말함.
3) 이라크 재건 지원 임무를 말함.

기와 성역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해왔으니까[그래왔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 이걸 딱 깨고 싶으신데 하도 입씨름하고 그거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시니까 진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는 연설만 올라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작업을 미리 다 하고 나중에 그래도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최종 통과할 때 또 [다들] 부르셔가지고 의견을 들으시는데 그걸 안 들으면 안 되죠, 대통령이 독선이지. 다 들으시긴 하는데 이미 준비과정에서 많이 무장이 되어있으시죠. 그 담에, 처음에 본인 생각이 발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확신이 없는 경우 많거든요. 긴가민가하지만 이걸 이야기할까 말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까지 수석들을 다 참여시키면 결국은 않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계속 가다듬고 정리를 하시잖아요. 확신이 들고 '이 이야기는 해야 돼'하면, 글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수석들 불러도 어느 정도 같이 토론이 되고 관철을 시키죠. 근데 대통령님은 또 관철을 시키지만, 수석들이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아니 되옵니다'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피운 적은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다시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면 다 받아줬어요. 대통령님이 그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다 고쳐주셨어요. 그니까 주로 고치는 역할을 저희가 그 표시를 다 해가지고 수석들 의견을 다 받아서, 수석들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해도 내려가서 비서관들하고 또 상의를 해보고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의견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수석실에, 그 표시를 다 해서 누구 의견, 그 다음에 요 문장은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단 대안까지를 당연히 제시를 해야죠. 이쪽 저쪽 해가지고 부속실에 주면 부속실에서 대통령님께 보여드리고 대통령님이 받아들이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는데 거의 구십오 프로(95%) 동그라미. 그래, 그래, 바꿔, 바꿔, 바꿔. 그런데 가끔 오 프로(5%) [동의를] 안 하는 경우는 진의를 잘못알고 고친 거 있잖아요. '어, 이거 원래 내 말뜻을 잘못 알아들었구나' 하면 '이거 아니고 이렇게 바꾸면 돼' 이렇게 하는 경우고. 그렇게 하고도 교감하고 싶어 하시니까 청중하고. 연설하시다가 원래 쓰셨던 거 있잖아요, 읽으시다가 그 이야기까지 다 하셔버리지. '이거는 내가 원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외교안보수석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데'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 쭉 하시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제 삼(3)의 안을 제시하시면서 결론을 내시기도 하고. '이 말이 아마도 세다고 생각돼서 이랬나본데 이 정도 말로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하신 적도 있고 그러시죠. 그래서 독회 할 때는 그

렇게 항상 합리적으로 결정하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항상 들으셨어요. 들으셨지, 무슨 뭐 본인 고집대로만 하시지는 않았죠. 원래 대통령 연설이라는 게 뭐 대통령 개인으로서 본인의 개성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다 담긴 연설이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연설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것들, 잘못됐을 때 미치는 파장, 대통령 연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님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62. 전북 전주 출생

1990.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1997. 대우그룹 회장비서실

2000.08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실 행정관

2004.05 - 2008.02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

2013.04 메디치미디어 편집주간

2014.02 <대통령의 글쓰기> 출간

2016. - 전북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초빙교수

1997년 대우그룹 회장비서실에서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국민의 정부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참여정부 연설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대통령 연설문을 쓰며 경험한 것을 공유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문'을 기억하며 8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책 <대통령의 글쓰기>(2014)를 썼다.